

혁신정책

#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방향과 과학기술외교 시사점

KISTEP 국제협력정책센터 강진원 · 김진하



##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방향과 과학기술외교 시사점

(’22.12.14., KISTEP 국제협력정책센터 강진원 연구위원 / 김진하 센터장)

### 1 작성 배경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11.11)와 한미일 정상회담(11.13)에서,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내용과 프놈펜 공동성명 발표
  - ※ 우리나라 인도-태평양 전략은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버전이며, 프놈펜 공동성명에서는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을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포함
- 본고는 한국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과의 차이점과 새로운 전략 내용 및 과학기술외교적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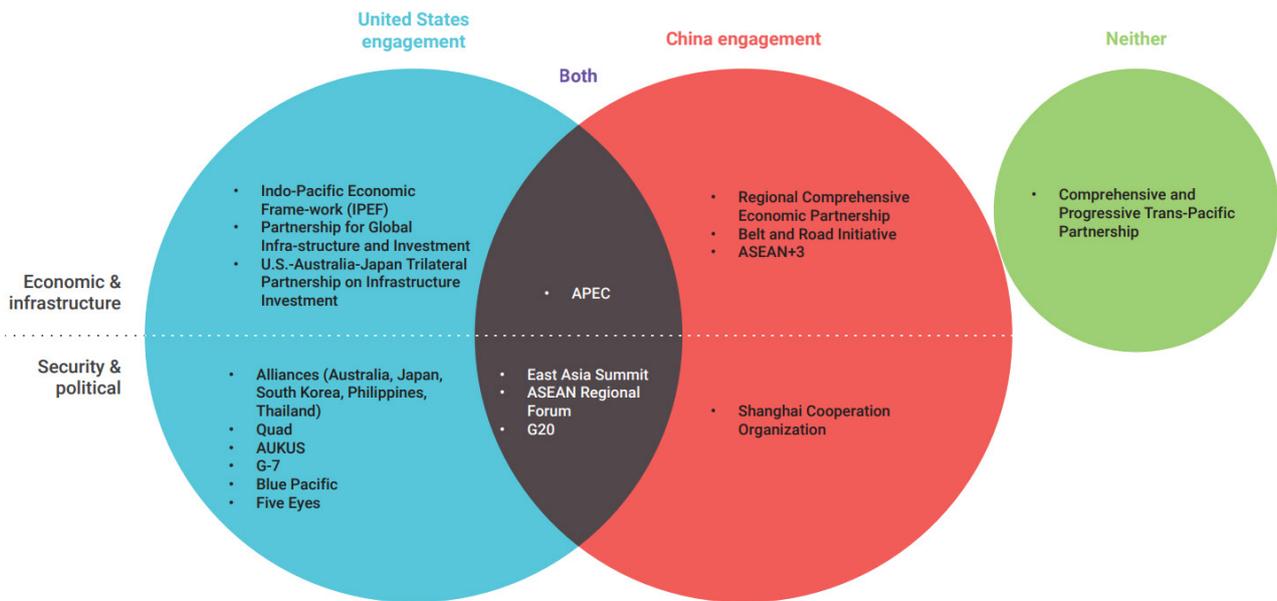
- (개요) 미국은 2022년 2월 '2022년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본적 전략체계 마련<sup>1)</sup>
  - ※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을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공조(Connectivity)'하여 '번영(Prosperity)', '안보(Security)', '회복력(Resilience)'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골자
-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며 10개 주요 행동계획\* 및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제시
  - \* 주요 행동계획은 새로운 자원공급, 안보 강화, 아세안과 인도와의 협력, 쿼드 강화, 한·미·일 협력 확대 등 포함
- '21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경제 프레임워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유연한 경제협력을 위해 구상
  - ※ 미국은 '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후, 중국이 가입을 신청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 대신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 ※ 동 프레임워크는 관세철폐가 목적인 전통적 FTA와 달리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탈탄소 등의 분야에서 각각 규범을 만드는 복수의 행정협정 패키지 형태(FTA는 조약)
- (주요내용)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정책을 이용하여 미·중 대결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서 유지와 동맹/파트너 네트워크 강화로 방향 전환<sup>2)</sup>

1) 해당 내용은 Indo-Pacific Strategy, 2022, Biden Administration Plans for a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2022 참조

2) 구체적 내용은 An American Strategy for the Indo-Pacific in an age of US-China competition: enhancing alliances, economic engagement, and regional stability, 2022 참조

- 미국은 안보동맹 심화, 쿼드와 같은 소다자(minilateral) 협력, ASEAN과의 협력, 인도와의 관계 심화, 한미일 협력 등 협력체 강화(그림 참조)
- IPEF를 통한 경제적인 성과를 획득하고 미국의 우방국들과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파트너와의 응집력 강화
- 규칙 기반 질서를 통해 남중국해, 한반도 등 전쟁 억지력을 향상하고 장기적인 평화를 유지

〈그림〉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Brookings, 2022)



### 3 한국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 (신남방정책) 한국은 2017년 한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대응 및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한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아세안/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신남방 정책 수립

- 사람\*, 번영\*\*, 평화\*\*\*의 원칙하에 지역 공공재 공급, 특히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등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

\* '사람' 원칙은 인적교류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문화 관계의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협력의 기초에는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 '평화' 협력은 과거 한반도에서 우리의 입장 지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식이라면 평화협력을 통해 지역전반의 평화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상징

\*\*\* '번영'은 한국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했던 경제협력 관행에서 벗어나 한국의 지원이 지역 경제성장을 통해 다시 한국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모색

□ 정책의 3대 축인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중에서 평화, 즉 정치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고 지역질서에 대한 비전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됨<sup>3)</sup>

※ 한국과 신남방국가와 교역규모가 2017년을 기점으로 반등,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하여 한국의 2위 무역 및 해외 투자 대상국이 되었고, 비자제도 개선 및 교류·활성화 등으로 상하반기 2018년 최초로 1,000만명 돌파

3) 해당 내용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과제: 신남방정책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2022 참조

□ (인태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11.11)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 3대 원칙하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방향 제시<sup>4)</sup>

- 아세안과 인도가 미·중 패권경쟁의 무대가 되면서 역내 안보의제 비중이 높아지고 다른 의제와의 연결성도 강화되는 추세로 아세안과 인도를 지정학적 전략단위(인도·태평양)안에서 자리매김하는 통합적 전략 필요

※ 중국, 일본, EU, 아세안 등 주요 국가들도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정책을 수립(표 참조)

〈표〉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KITA, 2022)

구분	인도-태평양 전략	주요 내용
중국	일대일로(2013)	- 육상, 해상 기반 무역망을 개척하고 동아시아 등 개도국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추진
일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2017)	-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사이의 경제성장 도모, 자유무역과 인프라 추진, 안보 협력
아세안	ASEAN Outlook on the Indo Pacific(AOIP)(2021)	- 인도·태평양의 해양, 경제협력 등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표명 - 아세안 중심성을 강조하고 대립이 아닌 협력과 대화를 추구
EU	인태지역에서의 EU 협력전략(2021) Global gateway(2021)	- 인태지역에서 경제, 해양, 안보 등 분야에서 EU 참여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 증진 추구 - 금융기관, EU 회원국 정부, 민간 영역이 유럽 역외 인프라 건설에 2027까지 3천억 유로 투자

- 인태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해당지역에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공급망 복원력 및 경제안보 강화, 협력적·포용적 경제기술생태계 조성 추진

※ 한국 인태전략의 핵심적 목표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기반 질서의 강화 제시(규칙에 기반한 대화를 통한 분쟁·무력충돌 방지 및 평화적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반대)

※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분야 등에서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수행

※ 한국의 인태전략 추진에서 아세안이 핵심적 협력 파트너로 언급하고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화(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독자적 인태전략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지지)

## 4 과기외교에 주는 시사점

□ (인태전략) 미국 등 우방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성을 제고하며,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필요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자체적인 외교정책보다 전략적인 환경과 역학 관계를 고려할 필요

※ 한국에 대한 지역의 인식은 아시아에서 미국 동맹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인식: 일본은 2021년 Diplomatic Blue Book에서 인도태평양 파트너에서 한국 제외; 호주는 우리나라와 정례적인 장관급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호주의 Best Friend 인식 조사(2022)에서 한국(4-5%)은 중국(6%)보다 낮음; 아세안의 경우 신남방정책을 통한 아세안에 대한 관심과 한류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한국은 미온적인 위치(지역 리더십에 대한 신뢰에서 0.8%로 뉴질랜드와 호주보다 낮은 10개국 중 9위<sup>5)</sup>)

4) 해당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주요내용과 전략적 함의, 2022 참조

5) 해당 내용은 South Korean Foreign Policy in the Indo-Pacific Era, Brookings, 2022 참조

- 인태지역에서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남방국가의 입장과 니즈를 반영한 협력이 필요
-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고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되, 한미 간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은 협력의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 우리나라 정책 연계에서 신남방정책을 계승하여, 사람과 번영 원칙을 강화하고 평화 원칙의 부족을 보완하여 지역질서에 대한 정책을 강화

※ 윤 정부에서 공식적인 정책에서는 신남방정책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나, 인도와 아세안 10개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

- **(과기외교)**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에서 중국 리스크, 미국과의 정책조율, 인도-태평양 역내 이슈를 고려한 과학기술외교 필요

- 우리나라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특정국을 배제하거나 목표로 하지 않는 규칙 기반 질서 강화를 천명하고, 기술안보를 고려한 중국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속 및 강화

※ 중국과는 협력은 안보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보기술(반도체, 배터리 등)은 동향정보 파악과 민간의 자율적 협력에 집중하고 비안보기술(환경, 바이오, 기초과학 등)은 정부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인력교류, 해외진출 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

- IPEF 등 미국의 인태전략에 적극 참여하고 신남방국가와의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환경, 보건, 재해재난, 해양 등 분야의 협력에서 한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사업 우선 추진

※ 신남방국가와 수요기반의 ICT 인프라협력,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 기후변화 대응, 메콩지역 생물다양성 보존, 코로나 19 대응과 예방, 재해재난 예·경보시스템 등 미국과 연계하여 추진<sup>6)</sup>

- 공급망, 신형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경제안보, 팬더믹, 기후변화 등 소다자 이슈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 남북협력 등 양자 이슈에 대해 과학기술외교 적극적 추진

※ 인태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연구 다자협력 프로그램(예: 인도-태평양 기초과학 또는 사회문제해결 공동연구 프로그램' 등)을 기획 추진하여 우리나라 주도의 과학기술외교 수단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인태지역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제고(남북 과학기술협력의 경우, 양자 간 협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협력 의제 도출이 가능)

※ 한일관계는 양자 간 협력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미·일 협력을 활용하여 한·일 협력 활성화 필요

6) 해당 내용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방향, 2020 참조

---

[참고문헌]

- An American Strategy for the Indo-Pacific in an age of US-China competition, Richard D. Bush et al., Policy Brief, Brookings, 2022
- South Korean Foreign Policy in the Indo-Pacific Era, Andrew Yeo, Policy Brief, Brookings, 2022
-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The White House, 2022
- Biden Administration Plans for a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2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 IPEF,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 박선민, 이유진, KITA 통상리포트, 2022
- ‘신남방정책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인태전략 제안’, 이재현,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2022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최인아 등, KIEP 정책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과제: 신남방정책을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최윤정,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22
-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주요 내용과 전략적 함의’, 최원기, IFANS FOCUS, 국립외교원, 2022

## [ KISTEP 브리프 발간 현황 ]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01 (22.02.09.)	시스템반도체	채명식 (KISTEP)	기술동향
02 (22.02.10.)	미 하원 「2022년 미국 경쟁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창택 (KISTEP)	혁신정책
03 (22.02.23.)	메디컬 섬유소재	정두엽 (KISTEP)	기술동향
04 (22.03.02.)	2020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한용용 (KISTEP)	통계분석
05 (22.03.14.)	2020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강유진·김주원 (KISTEP)	통계분석
06 (22.03.16.)	바이오헬스 정책·투자동향	김종란·강유진·홍미영 (KISTEP)	기술동향
07 (22.03.18.)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과학기술 동향과 시사점	김진하·이정태 (KISTEP)	혁신정책
08 (22.03.21.)	미래 스마트 팩토리 유망 서비스	KISTEP·ETRI	미래예측
- (22.03.23.)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기여할 10대 미래유망기술	이동기 (KISTEP)	이슈페이퍼 (제323호)
09 (22.03.30.)	바이오연료	박지현·강유진 (KISTEP)	기술동향
10 (22.04.04.)	2020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	한용용 (KISTEP)	통계분석
11 (22.04.08.)	일본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전략 주요내용과 시사점	김규판(KIEP) 김다은·홍정석(KISTEP)	혁신정책
12 (22.04.13.)	6G 통신 기술	이승필·형준혁 (KISTEP)	기술동향
13 (22.04.18.)	우리나라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 2020년도 기준 -	한용용 (KISTEP)	통계분석
14 (22.04.27.)	소재 신(新)연구방법론	정두엽·조유진 (KISTEP)	기술동향

- (22.04.29.)	대전환 시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	변순천 외 (KISTEP)	이슈페이퍼 (제324호)
15 (22.05.02.)	OECD MSTI 2022-March의 주요 결과	정유진 (KISTEP)	통계분석
16 (22.05.16.)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현황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 (22.05.18.)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및 대응 전략: 인공지능 역기능을 중심으로	구본진 (KISTEP)	이슈페이퍼 (제325호)
- (22.05.26)	「국가R&D 혁신방안」 추진과제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언	최창택 (KISTEP)	이슈페이퍼 (제326호)
17 (22.06.02.)	2020년 미국의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분석 - NSF, Doctorate Recipients from U.S. Universities -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 (22.06.08.)	일반국민은 2022년 정부R&D예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승규·박지윤 (KISTEP)	이슈페이퍼 (제327호)
18 (22.06.09.)	새정부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고윤미·배용국·양은진 ·심정민(KISTEP)	혁신정책
19 (22.06.15.)	2021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김선경 (KISTEP)	통계분석
- (22.06.17.)	감염병 위기대응 4대 영역별 핵심기술 및 정부R&D 지원방안	김주원·홍미영 (KISTEP)	이슈페이퍼 (제328호)
20 (22.07.04.)	2022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	김선경 (KISTEP)	통계분석
21 (22.07.06.)	양자정보기술	유형정 (KISTEP)	기술동향
- (22.07.11.)	신산업 정책의 민관협력(PPP) 주요 이슈 분석	신동평·허정·권용완 (KISTEP)	이슈페이퍼 (제329호)
22 (22.07.11.)	메타버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이나래 (KISTEP)	혁신정책
23 (22.07.18.)	전국대학 연구활동 현황 - 2021년 전국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기준 -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24 (22.08.01)	미국 대학의 연구활동 현황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25 (22.08.08)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주요국 세액공제제도 신설 동향 및 시사점	조길수·유혜인 (KISTEP)	혁신정책
26 (22.08.17)	CCU(이산화탄소 활용)	여준석·김태영 (KISTEP)	기술동향

27 (22.08.18.)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현황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 (22.08.24.)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의 주요 쟁점과 제언	박일주·이지은 (KISTEP)	이슈페이퍼 (제330호)
28 (22.08.25.)	바이오플라스틱	박지현·홍미영 (KISTEP)	기술동향
29 (22.08.31.)	美, 「반도체 및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송원아·이양경·김다은 (KISTEP)	혁신정책
30 (22.09.05.)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31 (22.09.16.)	K-방산 수출 성과와 민군 R&D 협력의 주요 시사점	임승혁·유나리 최충현·한민규 (KISTEP)	혁신정책
32 (22.09.19.)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한웅용·한혁 (KISTEP)	통계분석
33 (22.09.21.)	美,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종란·김주원 (KISTEP)	혁신정책
34 (22.09.28.)	오픈사이언스 시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연구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이민정 (KISTEP)	혁신정책
35 (22.10.04.)	2020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2500 기업 현황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36 (22.10.05.)	지능형 센서 플랫폼	권정은·조유리 (KISTEP)	기술동향
- (22.10.06.)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망 분야 도출 및 정부지원 방안	박지현·홍미영 (KISTEP)	이슈페이퍼 (제331호)
- (22.10.20.)	신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 현황 진단 및 기술적 한계 극복전략	김진용·김어진 (KISTEP)	이슈페이퍼 (제332호)
37 (22.10.31.)	디지털 역기능 전망과 대응 방향	KISTEP·ETRI	미래예측
38 (22.11.03.)	메타물질	김용준·이학주·임승혁 (수원대학교·파동에너지 극한제어연구단·KISTEP)	기술동향
39 (22.11.03.)	'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및 제언	서지현·김희정 (KISTEP)	혁신정책
40 (22.11.07.)	2022년 유럽혁신지수 분석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22-	김선경 (KISTEP)	통계분석

41 (22.11.15.)	2020년도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현황 분석	한용용·김한울 (KISTEP)	통계분석
- (22.11.17.)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활동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	김주일·이승필·정두엽 조유진·진영현 (KISTEP)	이슈페이퍼 (제333호)
42 (22.11.18.)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기본방침 및 기본지침 주요 내용과 시사점	송원아·김규판 (KISTEP·KIEP)	혁신정책
43 (22.11.22.)	2022년 OECD NESTI 작업반 최신 동향 및 시사점	정유진 (KISTEP)	혁신정책
44 (22.11.23.)	소형모듈원자로 (SMR)	강경탁·이연진 (KISTEP)	기술동향
- (22.11.24.)	출연연의 전략성과 도전성 강화를 위한 기관평가 제도 개선 방안	김이경·우기쁨·정수현 (KISTEP)	이슈페이퍼 (제334호)
45 (22.11.28.)	미국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에 따른 첨단기술 정책 변화 전망과 시사점	김진하·서정건 (KISTEP·경희대학교)	혁신정책
46 (22.11.30.)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강유진·김주원 (KISTEP)	기술동향
47 (22.12.01.)	2022년 세계혁신지수(GII) 분석	김선경 (KISTEP)	통계분석
48 (22.12.02.)	연구현장에서 바라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유지은 (KISTEP)	혁신정책
- (22.12.06.)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이승필·여준석 조유진·김태영 (KISTEP)	이슈페이퍼 (제335호)
- (22.12.06.)	新기후체제 시대 기후변화 적응 R&D의 주요 이슈 및 정부R&D 투자방향 제언	성민규·박창대 (KISTEP)	이슈페이퍼 (제336호)
- (22.12.12.)	실험실창업,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실험실창업 추진실태 분석과 정책제언- (Suggestion for laboratory start-up activation)	이길우·방형욱·김태현 (KISTEP·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이슈페이퍼 (제337호)
- (22.12.14.)	기술수용주기 모형 기반 2045년 미래혁신기술 분석	이재민·박창현·전해인 (KISTEP)	이슈페이퍼 (제338호)
49 (22.12.14.)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방향과 과학기술외교 시사점	강진원·김진하 (KISTEP)	혁신정책